

고수온 영향으로 올해 해파리 대량 출현 예상... 피해 최소화 위한 방지대책 시행

- 2026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재난대비훈련도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올해 고수온 영향으로 해파리의 대량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립수산물과학원 해파리 출현 현황 조사(3~4월) 결과, 평년 대비 1.2~2.8°C 높은 수온으로 인한 빠른 성장으로 5월 말~6월 초 보름달물해파리 남해안 고밀도 발생 예상

국내 연안에 주로 출현하는 해파리는 7종이며, 이 중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는 고밀도로 출현하여 조업에 지장을 일으킨다. 또한 독성이 있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커튼원양해파리, 작은상자해파리, 유령해파리, 관해파리류 등은 해수욕객 쏘임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먼저 해파리 부착유생*을 제거하고, 해역별로 민관 상시 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기관별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해파리 대응 기구를 운영**하여 출현 현황과 피해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해파리 수매 및 장비를 이용한 해파리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 (부착유생) 구조물에 부착하여 생활하는 단계로 무성생식을 하며, 하나의 부착유생에서 평균 20여 마리의 해파리가 번식함

** (해양수산부) 해파리 상황실('주의', '경계' 수준), 중앙사고수습본부('심각' 수준) 운영
(지방정부) 종합상황실('주의', '경계' 수준). 지역사고수습본부('심각' 수준) 운영
(국립수산물과학원) 종합상황실('주의' 수준 이상) 운영

아울러, 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5월 19일(화)에는 경남 고성군 해상에서 경상남도, 고성군, 유관기관, 어업인 등 민관 합동으로 해파리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는 관공선 5척, 어선 7척, 어장 관리선 1척, 드론 등이 투입되어 ▲해파리 수, 개체 크기 확인, ▲ 해파리 수매 작업, ▲해파리 절단망을 활용한 해파리 제거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훈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재난 대응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해파리를 발견 시 '해파리 신고 웹'에 신고할 수 있고, 해수욕장 운영 기간인 7~8월에 신고한 사람 중 4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국립수산물과학원 누리집(<https://www.nifs.go.kr>)을 통해 어업인 등에게 해파리 출현 동향 알림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해파리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피해 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해파리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동양 (051-773-5530)
	수산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은규 (051-773-5542)
	국립수산물과학원	책임자	주무관	조화진 (051-773-5535)
			과 장	한인성 (051-720-2210)
	기후변화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윤석현 (051-720-2240)
			연구사	김경연 (051-720-2223)

참 고

2025년 해파리 대량출현 재난대비훈련 실시 사진



